

# 「외재화(外在化)」할 수밖에 없는 병으로서의 CRPS (복합부위통증 증후군)

—만성동통을 안고 사는 환자와 가족의 사례에서—

오노 마유코 (리츠메이칸대학 첨단종합학술연구과·일본학술진흥회특별연구원)

mayuko763@hotmail.com

## 배경과 목적

- 배경:**
- \* 통증에 관한 선행연구
    - 의학영역에 관한 효과연구
      - ← 효과 이외의 요소에 관해서는 알 수 없음
    - 암환자에 대한 터미널·케어
      - ← 죽음을 전제로 함. 통증과 함께 살아갈 수 밖에 없음
    - 환자 괴로움에 관해서는 검토되지 않았었다
  - 의료인류학영역에 관한 통증의 언설
    - ← 「비유로서의 통증」. 통증의 의미를 풀어 읽고, 병의 상태의 의미를 부여하는 작업이 중심

**목적:**


의학적 시점으로는 파악할 수 없음, 끝없음, 의미부여도 하지 않으려 함, 신체적 통증과 함께 살아가는 체험은 어떠한 것인지를, CRPS 환자의 사례를 통해 밝힌다.

※ CRPS란... 골절, 조직상해나 신경손상을 계기로 감각신경 운동신경 자율신경, 면역계 등의 병적 변화에 의해 발병하는 만성동통을 주 증상으로 하는 난치병

## 고찰

### 1. 왜 증상을 묻는 것이 고통일까?

#### (1) 통증의 현재성

- 통증 = 과거나 미래가 아닌, 이미 「현재」에 존재함
  - 침해적(侵害的), 찰나적, 시감적 전망을 상실하게 됨
  - 순간순간의 연속으로 구성되어 있어, 현재진행형인 것
- A씨는 24시간 통증을 지니고 있다
  - 「아파?」라고 답하면 아이들은 슬퍼함.  「안 아파」라고 말할 정도의 여유도 없는 딜레마

#### (2) 외재화할 수 밖에 없는 통증

- \* 통증을 둘러싼 현재까지의 연구
  - 병과 사람이 미분화: 「○○환자인 A씨」
  - 병은 인간에게 자아친화적·내재적: 「A씨 with 통증」 (=○○이라는 병을 가진 A씨)
  - 그러나, CRPS의 경우... 외재화: 「자기」와 「통증」을 완전히 분리 (=자기 안이 아닌, 외적 측면에 통증을 둠)
    - 자기긍정의 이야기는 해도, 통증에 관해서는 부정적 발언 뿐
    - cf.) 우울증, 공포증... 분리할 수 없는(내재화) 것이 병의 상태

\* 복지·고용제도 안에서 지원을 얻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그 곤란성을 증명해야 한다.  
= 무의식적·의식적에 관련 없이, 억지로 멀리하고 있던 통증을 안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게 됨

→ 타인의 질문에 대답하는 것 = 「나의 통증」으로 일단 받아들이는 작업이 필요하게 됨  
말하는 것 자체가 통증을 구성하게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.

### 2. 종래의 케어관(觀)에서 새로운 케어관(觀)으로

- 종래의 「케어관」 = 「현재」를 묻는 것에 의한 걱정
  - 그러나, CRPS의 경우, 「현재」에 관하여 배려 받는 것이 고통
- A씨의 가족... 묻지 않는 것으로 걱정함 = 새로운 「케어관」으로 전환되었다.

## 사례

**대상:** CRPS(복합부위통증증후군) 환자 1명  
A씨: 여성, 60대 전반, 남편과 동거, 무직, 투병기간: 1년 11개월, 장애부위: 우상지, 수술에 의해 CRPS가 발병

**수속:** 반구조화면접... 신체의 병상태에 대해 자세히 청취 → 그 후, 치료경과, 주변의 반응, 그것에 대한 자신의 생각에 관해 자유롭게 말하도록 부탁했다.

#### 에피소드:

- A씨가 느끼는 통증 = 「쇠줄에 얽매이고, 개에게 이빨로 째 깨물 리고 있는 듯한」「죽고 싶을 정도의」통증, 「절단했으면 좋겠다.」
- 당초에는 가족이 통증을 이해해주지 않았다.
  - 그러나, 아이들이 통증에 관해 물어봐 주는 것이 점차 부담이 됐다.
- 어느 시기부터, 아이들이 전혀 「아파?」라고 묻지 않게 되었다
  - 「그때가 가장 기뻐다.」「우리 아이들은 생각이 깊네」
- 면접 중 우연히, 아내가 아이들에게 「항상 아프니까 묻지마」라고 말하는 것이 판명. A씨는 남편의 배려를 무척 기뻐했다.